

방통위,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<배려를 더하여 배리어프리> 캠페인 추진

- 시각·청각 장애인 크리에이터와의 토크쇼 및 캠페인 영상 공개
- 배리어프리(Barrier-free)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이동관, 이하 방통위)는 국정과제 「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·미디어 세상」 실현을 위해 시각·청각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<배려를 더하여 배리어프리>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

오늘 방통위는 시각·청각 장애인이 자막이나 화면해설기능이 없는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아쉬움과 개선점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담은 토크쇼 영상을 선보였다.

이 영상에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각·청각 장애인 크리에이터 원샷한솔(김한솔), 시시각각(양주혜), 진티비(박현진), 승하찌(표승화)가 출연하여 장벽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콘텐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. 4명의 유튜버들은 미디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노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.

<배려를 더하여 배리어프리 토크쇼 영상>



방통위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미디어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. 콘텐츠를 제작할 때 ‘친절한 자막 한 줄’ 과 ‘다정한 나레이션 한 마디’ 등 세심한 배려를 더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.

<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영상>



방통위는 배리어프리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통위 누리 소통망(SNS)에서 댓글 리뷰,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경험 댓글 공유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연계할 예정이다.

<배려를 더하여 배리어프리> 캠페인의 각 영상은 방통위 누리 소통망(유튜브, 페이스북, 블로그, 인스타그램, 트위터)과 방통위 누리집(kcc.go.kr)에서 시청할 수 있다. 끝.

담당 부서	대변인 디지털소통팀	책임자	팀 장	최현숙 (02-2110-1340)
		담당자	사무관	송재은 (02-2110-1335)